

분권 · 협력 · 통합적 광역경제 개발



동북아 IT 융복합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될 경상북도 구미와 대구 성서, 경산의 대경권 광역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지난 5월 4일 영남대 천마센터에서 열렸다.

3차원 지역발전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2개 특별 광역경제권(강원권·제주권)이 대상이다.

잠재력 등 고려해 선도프로젝트 추진

이러한 '5+2 광역경제권'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는 권역별 여건 및 잠재력, 발전 비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선도산업-인력양성-30대 SOC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했고 R&D,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SW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8~2012년까지 3년간 9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권역별로 선도산업지원단이 구성됐다.

한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거점대학)도 추진되고 있다. 인재양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천억원을 재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의 19개 대학(20개 인재양성센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과 더불어 광역경제권 내에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 권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30대 SOC 사업이 5년간 50조원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병행해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연계협력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기존 행정경계를 넘어 개별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장점을 상호연계·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역 스스로 발굴·제안됐고, 산업·문화·환경 분야의 30개 사업이 연계협력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설치됐다. 역할은 광역발전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도 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분담, 광역경제권 사업 관리 및 평가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광역경제권 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광역권 내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각계 대표로 하고 있다. 또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설치했고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2009년 7월 구성된 이래 지난 1년 동안 광역권 장기발전구상 및 광역발전계획 수립, 광역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평가, 권역별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선 5기의 출범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 광역권의 관점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계협력사업 발굴, 광역사업 평가 등에서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광역발

〈표 1〉 권역별 선도산업과 인재양성 사업

구분 권역	선도 산업	선도 프로젝트	거점대학	
충청	의약 바이오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사업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뉴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순천향대 충남대	
		신재생 에너지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목포대 전북대
호남	친환경 부품소재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 사업 고효율·저공해·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전남대 조선대	
		수송기계	그린카 오토헤일트 구축사업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한국해양대 창원대
			그린카 인재양성사업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울산대 부산대
동남	융합 부품소재	수송기계 안전편의부품소재 허브 구축사업	부경대	
		IT 융복합	IT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IT융합 실용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영남대 금오공대
			그린 에너지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강원	의료융합 의료관광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동북아 의료관광거점 구축 사업	강원대 한림대	
	제주	물산업 관광레저	제주위더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리조트 기반형 MICE 산업 선진화 전략	제주대

〈표 2〉 권역별 연계협력 시범사업(예시)

권역	프로젝트명
수도권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충청권	뉴 IT 부품 패키징산업 육성사업
호남권	글로벌 그린물드메카 구축사업
동남권	선박의 안전 향해를 위한 근거리/원거리 RADAR 시스템 개발
대경권	BY2C외씨버선 4색 루트 개발사업
강원권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부품소재개발 광역연계사업
제주권	증강체험형 개별/관광/테마파크 상품 생산기반 확립

전계획과 예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운용체계를 보완하고, 광역권 내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선도산업지원단, 인력양성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교류·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초국경적 연계협력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일본·중국 등 인근 국가의 광역권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래경제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연구위원
swkyong@hanmail.net

“3개 시·도 협력해 유망상품 개발에 주력”

남기석 호남권 광역선도산업지원단장(전북대 교수)



호남권은 친환경부품소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2개 선도산업에 동북아 태양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구축사업, 친환경 광기술기반융합부품소재육성사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등 4개의 프로젝트, 67개 세부과제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광기반 융합부품 소재와 하이브리드카 부품소재 사업이 A등급을 받았다. 축하한다.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면?

5개월 정도의 1차년도 사업을 통해 760명의 고용 창출을 이뤘고 기업유치, 투자협약 등의 성과도 거뒀다. 특히 유망상품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유기적인 수요-공급체계를 만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연구개발을 마친 후 상품화할 때 더 빨리 매출을 얻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지원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대비 실적 관리를 위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성과관리지표를 도입해 사업일정, 진행정도, 경제적 성과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이와 같은 자발적 성과관리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2012년까지 수출 9억달러, 고용 3,900명 창출을 달성해 호남권을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앞서 소개한 산업이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

호남은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경제권 형성에 유리한 위치다. 또 자동차산업이 부각돼 전기자동차 개발도 활성화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등 58개 대학과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통신연구센터 외 327개의 광 관련 기업이 있어 광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이 형성됐다. 최대 일조량, 높은 조수차, 양호한 해상풍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발전 잠재력도 갖췄다.

광역경제권은 기존의 시·도 개념을 뛰어넘는다. 의견충돌이 있었을 법한데.

처음 시·도 간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늦게 선정됐다. 하지만 광역 간·지역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합의를 이룬 후부터는 조율이 잘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8일 광역경제권 중 가장 먼저 출범식을 열었고 기획·산업·정책 측면으로 나뉜 3개 시·도 지자체, 연구원 지원단, 테크노파크 지원단 등이 제 역할을 해준 덕에 75억원의 추가 인센티브까지 얻게 됐다.

선도산업이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을 느낄 수 있나?

아직 사업 초기지만 선도산업 4개 프로젝트인 태양광, 풍력, 광융합,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을 지원하는 기업이 이전(16건)해 왔고, 관련 산업 가치사슬이 완성돼 산업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방향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권역 내 역량과 여건을 활용해 선도산업 육성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 혁신을 가속화하는 ‘안으로 열린 혁신’이다. 3개 지역 내외의 상생발전을 위한다는 인식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지역내 연구기관과 대학 등의 포괄적 협력관계도 구축돼야 한다.

둘째는 ‘밖으로 열린 혁신’이다. 선도산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보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기술가치를 높여야 한다. 기업은 유망상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시장 검증을 위해 프로젝트를 일반에 공개해 시장을 형성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스스로 R&D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는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취업을 87%, 취업자 전원이 정규직입니다”

조진호 경북대 IT융복합글로벌 인재양성센터장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는 독립된 패널로 운영되는 평가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전국 6개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선도산업에 47개 대학(49개 센터)이 신청했고 이 중 19개 대학(20개 센터)이 지정됐다. 경북대는 IT융복합글로벌 인재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IT융복합글로벌 인재양성센터라니 이름이 멋지고도 어렵다.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나?

대경권 선도산업인 IT융복합 의료기기·실용로봇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IT융복합글로벌 인재양성센터'를 만들었다. 143명의 교수가 참여해 총 2,199명의 학생을 IT융복합 분야를 선도할 예비인재로 키운다.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궁금하다.

의료트랙과 로봇트랙으로 구성된 'IT융복합 특화트랙'을 운영한다. 1·2학년을 위한 창의공학설계실험 등 14개 공통기반과목, 3·4학년을 위한 생체전자공학 등의 27개 의료트랙 전공심화과목, 28개 로봇트랙 전공심화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 학생들은 트랙 교과목 중 공통기반에서 18학점, 전공심화에서 24학점을 이수해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또 IT융복합 인재사관학교, IT융복합 글로벌리더캠프, IT융복합 해외프리인턴십 등 고유의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

센터로 지정되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나?

연간 53억2천만원의 국고지원금과 연간 3억6천만원의 지자체·대학·산업체 대응자금을 지원받는다. 우리 센터의 경우 1차년도 중간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5억원, 1차년도 연차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8억원을 추가로 받아 5년간 총 29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올해 학생 수는 얼마나 되나? 이들은 어떻게 선발하나?

우리 센터는 IT대학 전자공학부, 컴퓨터학부, 전기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이공대학 산업전자전기공학부, 자동차공학전공의 6개 학사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학사 조직의 재학생 4,500여명 중 2,199명의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다. 전공학점, 어학성적 등 학업 능력을 고루 평가한다.

교육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1차년도 중간평가와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센터로 인정받아 13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얻었다. 총 249명의 취업대상자 중에서 216명의 학생이 취업에 성공해 86.7%의 취업률을 달성했고, 취업자 전원이 100% 정규직으로 취업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이 센터장으로서 가장 보람됐다.

선도산업 관련 기업에서 인재에 대한 요구가 있나?

물론이다. 대경권 선도산업은 단기 3년간만 해도 1천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다. 많은 업체들이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을 고도화시켜 매출을 늘리려 한다. 선도산업대상 기업은 채용과 연계한 교육을 요구하고 센터도 이에 부응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 사업 중 개선됐으면 하는 점은?

우리 센터는 지역산업 구조개편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는 지역의 IT융복합 산업이 성숙했을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날 것이므로, 센터 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에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제도적 뒷받침이 보강됐으면 한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